

영농기 일손부족 해결사

임실군, 고령 소규모 경작 농업인대상 농기계 작업단 본격 활동

임실군의 효자동농업정책으로 손꼽히는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이 맞춤형 농촌복지라는 호평 속에 올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8일 군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이면서 0.5ha 이하 소규모 경작을 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전담인력이 찾아가는 농기계 작업단을 운영 중이다. 봄철 영농기를 맞아 고추 등 밭작물 두둑, 비닐씌우기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



임실군의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영농도우미로 고령농가에 큰 힘을 보태고 있는 농기계작업단은 큰 인기를 누리며, 63농가 71,000㎡를 완료했으며, 77농가 6만4,000㎡가 예약 신청된 상황이다.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특별히 해결하면서 군민들의 사랑받는 정책으로 안착하고 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을 통해 농업경영 안정화와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으로 농업소득 향상에 이바지 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농기계 사용이 어렵고 운반차량이 없는 소규모 고령·영세농 및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고령영세농 농기계작업단을 이용한

자사면 농가 관계자는 "제때 작업을 하지 못해 항상 농사일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내가 필요할 때 작업을 요청하면 언제든 달려와 작업을 해놓고 가니 농사 짓는데 활력이 넘치고 있다"며 "항상 고맙게 이용하고 있고,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는 효자가 따로 없다"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 "고령화 되어가고 있

는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행복한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는데 조금이나마 불편함이 없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시작한 정책"이라며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앞으로도 소독이 낮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걱정 없이 농사지를 수 있는 다양한 농정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시민들의 건의사항 신속 처리

남원시, 중간 점검 거쳐

남원시는 연초 읍면동 시정설명회에서 수렴된 시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중간 점검을 갖고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시민들의 건의사항 중 장기검토, 상급기관 건의, 유관기관 협의 건에 대해 집중 논의를 펼쳤다.

실과소 부서장들은 부서간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 상급기관 설득 전략 발굴에 머리를 맞췄다.

남원시는 지난 1월 21일 주천면을 시작으로 2월 28일 운봉읍까지 진행된 시정설명회에서 128건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완료 24건, 추진 중 29건, 추진예정 24건, 검토 41건, 상급기관 건의 7건, 유관기관 등 협의 3건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건의된 내용 중 안전재난 등 시급한 사항은 설명회 후 이 시장과 해당 실과소장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도 하였다.

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등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이환주 시장은 "건의사항에 대해 긍정적인 마인드와 건의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국민신청실명제 실시

남원시는 오는 4월1일부터 30일까지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신청실명제를 실시·접수한다.

남원시가 올해로 2년째 실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 될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참여는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에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담당공무원 이메일 또는 남원시청 감사실로 우편이나 방문신청 하면 된다.

신청받은 사업들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접수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다른 사업들과 함께 상정, 심의를 거쳐 선정해 6월중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단,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민원, 신청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국민신청실명제 분기별 운영으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 추진, 정책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취약계층 아동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

순창군이 올해 취약계층 아동과 가정에 건강, 보육, 복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군은 올해 2억2,8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120가구 133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비만수영교실, 과학체험관, 스포츠치통캠프, 찾아가는 언어치료 등 기본 및 필수, 맞춤형 서비스 등 총 44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먼저 서비스 대상 아동의 지속적인 발굴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피 해보는 아동들이 없도록 추진하는 한편 사례회의를 통해 슈퍼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또 지역내 관공서와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서비스 효율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기초학력검사, 찾아가는 언어치료, 기초실력다지기

등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의 학업성취도 돕고 있어 저소득층 가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지역내 다문화가족이 늘고 있어 언어로 인해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없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문심리상담사와 연계해 가족상담치료와 통합놀이 미술치료 등도 추진해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사회에 부적응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경로당 491곳에 편익시설 확충 안전 도모

남원시가 관내에 시설되어 있는 491개의 경로당에 대한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안전 도모 등을 통해 노인복지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30년이 넘는 경로당 개축 및 시설개선에 19억6,7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늘어나는 노인복지수요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경로당 책임보험에도 가입해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화재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고무가스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중간밸브에 타이머를 설치



하는 등 가스안전시설 보강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동절기 4개월 동안 운영했던 두레방을 올해에는 5개월로 늘려 운

영할 계획이며,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했던 운영비도 올해부터는 5인 이상일 경우 420만원을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경로당 현판이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을 현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경로당 현판도 이미지가 세련되고 활기찬 이미지로 바뀌어갈 계획이다.

이환주 시장은 "노인복지 정책에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이 가장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노인은퇴자를 위한 공간인 목금토(木金土) 공방 개소식을 가졌다.

노인은퇴자를 위한 작업공간 마련

도내 최초... 남원시, '목금토 공방' 개소식

남원시는 도내 최초로 28일 남원시 산내면 실상사에서 노인은퇴자를 위한 공간인 목금토(木金土)공방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환주 남원시장, 윤지홍 시장의 및 의원, 그리고 은퇴노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운영은 사단법인 한생명(대표 홍익진)에서 운영한다.

목금토 공방은 전라북도에서 지난해 5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2018년 노인은퇴자를 위한 작업공간 설치운영 공모사업"에 최종 심의위원회를 거쳐 남원시가 선정되어 도비 2억원과 시비2억원 등 총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했다.

자녀에 하반기부터 교육을 추진하며 운영비, 장비구입비 등으로 2억원을 사용하였고, 공사비 2억

원을 들여 산내면 실상사 부지에 대지면적 806㎡, 연면적 190.95㎡(57.8평) 규모로 신축했다.

이곳은 은퇴자들의 목공, 용접 등 공동작업장으로 활용되며, 벤치, 수납장, 가구 제작 등은 여가·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집에서 필요한 물건을 만들거나 수리를 하거나 지역사회에 필요한 장난감, 교구 등을 제작 판매도 하게 된다.

이환주 시장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은퇴자를 위한 작업 공간은 노년기 어르신들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 적응력 도모에 절실하다"며 "체계적인 취미 활동 뿐만 아니라 창업으로도 연결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서울 방화초 등 24교

6월 말까지 전통장 체험 운영

국가무형문화재 제137호로 지정된 만큼 소중하게 보존해야 하는 전통장(醬) 담그기 문화를 순창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됐다.

전통 장 문화학교는 순창군이 장 담그기 문화체험을 지원하고 각 학교는 전통장 구입을 통해 실생활에 활용하게 하는 우리 고유의 식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관련 군은 28일 서울 방화초등학교 학생들을 시작으로 6월말까지 24교 1천여명을 대상으로 1박2일 일정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방화초 학생들은 고추장 기능인 집에서 장류 발효음식으로 만든 집밥 체험과 전통 장을 비롯한 고추장 및 된장을 직접 담는 체험을 하고, 장류역사를 보여주는 장류박물관을 관람했다. 이어 전통장이 저장되어 있는 발효소스도굴을 둘러보고 강천산을 등반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